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당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견
117 (지극한 근심에)	489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127 (십자가 바라보며)	281 (성 요셉)

제 1독서 | 탈출기 20,1-17

화답송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좌)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우)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좌)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우)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복음 환호송 |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 요한 2,13-25

영성체 후 묵상 |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시며 어리석음이십니다. 그렇지만 부르
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지혜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과 약
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
리스도의 수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합시다.

제 2독서 | 코린토 1서 1,22-25

오늘의 복음, <요한 2,13-25>



Just before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and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and sheep and pigeons, and the money-changers sitting at their counters there. Making a whip out of some cord, he drove them all out of the Temple, cattle and sheep as well, scattered the money-changers' coins, knocked their tables over and said to the pigeon-sellers, 'Take all this out of here and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Then his disciples remembered the words of scripture: Zeal for your house will devour me. The Jews intervened and said, 'What sign can you show us to justify what you have done?' Jesus answered, 'Destroy this sanctuary,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The Jews replied, 'It has taken forty-six years to build this sanctuary: are you going to raise it up in three days?' But he was speaking of the sanctuary that was his body, and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he had said.

During his stay in Jerusalem for the Passover many believed in his name when they saw the signs that he gave, but Jesus knew them all and did not trust himself to them: he never needed evidence about any man; he could tell what a man had in him.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의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의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

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사순시기 묵상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29항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흔한 어려움은 분심(分心, distraction)이다. 이것은 소리 기도에서 말과 그 의미에 관련될 수 있고, 좀 더 심하면, (전례적이거나 개인적인) 소리 기도에서,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 관련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분심을 몰아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된다.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분심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므로, 이것을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어 깨달으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인 사랑이 일깨워질 것이다.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연히 바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을 천천히 살펴보았나요?

현재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나요?

가톨릭 교회 교리 - 예수님이의 생애와 죽음

예수님의 전 생애는 마냥 슬펐을까요?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라는 ‘니케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의 일생을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니케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이는 사도신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에서 그분의 죽음에 대한 고백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과 마지막은 언제나 그 사이의 삶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탐구는 오늘날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로잡는 흥미로운 관심사입니다. 이른바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이나 서적들, 또는 ‘나자렛 예수’라는 제목이 들어간 수많은 책들이 이런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풀려고 매달리고 있지요

복음서의 예수님

그런 물음에 답하고자,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도 「나자렛 예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유년기, 이렇게 3부작으로 펴내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황님이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알고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특히 무엇보다 ‘복음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들이 묘사하고 전해주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 곧 실제 예수님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요한 5,39). 예수님을 알고 만나서 그분과 친교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성경을 제쳐두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안에서, 특히 복음서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자렛 예수는 사람이 되시어 이 땅 위에서 사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적들

은 ‘하느님 아들’로서의 말씀과 행적들입니다. 곧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의 표지이자 도구, 곧 ‘성사’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515항 참조). 달리 말해,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전적으로 깃들어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들은 나자렛 예수라는 한 인간의 그것이면서, 동시에 남김없이 모두 강생하신 말씀의 역사적 표현들입니다. 그분은 참인간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자렛 예수에 대한 수많은 탐구가 예수님의 일생을 그저 한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가의 정도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의 많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영웅전이나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들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느님께서 몸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만 옳게 읽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물론 우리는 온전히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묘사된 그분 생애의 주요 순간들이 우리를 위한 구원사건이고 하느님의 계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콜로 2,3).

십자가라는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을 마감하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여느 인간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아니 그것은 먼저, 온전히 한 인간 나자렛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분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난 유일무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시어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분께서 그러시다니…!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1코린 1,22-23).

(다음주에 계속)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고해성사 권리

사순시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느님 앞에 겸손되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2. 사순시기 고해성사 순서 안내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옆에 적혀있는 소공동체반 순서대로 성사를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공동체반 이후에 성사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신자 분들 누구나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참례자 수 |

2월 18일	유아·청소년: 24명	성인: 53명
2월 25일	유아·청소년: 15명	성인: 35명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3월 3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다음주 (3월 10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3월 3일)	요한반
다음주 (3월 10일)	루카반

<사순시기 고해성사 - 소공동체 반 순서>

- 3월 3일(주일) - 마태오반
- 3월 10일(주일) - 마르코반
- 3월 17일(주일) - 루카반
- 3월 24일(주일) - 요한반

3.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30분 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4. 견진성사 안내

9월 29일(주일)에 크리스토퍼 대주교님께서 주일미사와 견진성사를 집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반은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견진성사에 신청 및 안내사항은 8월에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 (2월 24일 ~ 3월 1일)

봉헌금	\$235.6			
교무금	\$680			
권묘순	김요한	방진선	남궁영근	서진원
양홍석	양명식	안영규	이지영	전인철
조성희	허준	윤현태		

기도 지향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